



사전투표율 31.28% '역대 최고'...민심 향배 촉각

Ⓢ 총선 D-2

전남 41.19% 1위·광주 38% 3위...신안군 54.81% 기록
與 "범죄자에 화난것 표출" vs 野 "정권 심판 확인"
정치권 '아전인수' 해석 속 총투표율 70% 돌파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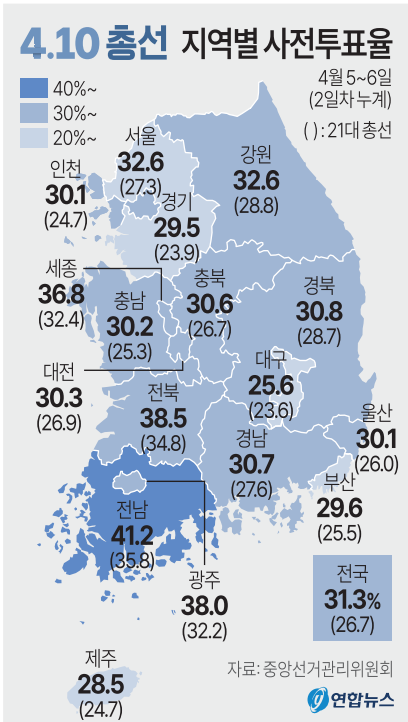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선출하는 4·10 총선 사전투표율이 31.28%로 역대 총선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신안군 54.81%를 비롯해 전남 사전투표율은 41.19%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광주도 38.00%로 전국 3위에 이름을 올렸다.

▶ 관련기사 2·3·4·5면

여야 정치권은 높은 사전투표율에 대해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으며 선거 막판 세 걸잡에 주력하고 있어 오는 10일 본투표까지, 최종 투표율 70%를 돌파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사전투표가 마감된 지난 6일 오후 6시 기준 전국 투표율은 31.28%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5·6일 이틀간 전국 3천566개 투표소에서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전체 유권자 4천48만11명 중 1천38만9천45명이 참여했다.



사전투표 행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실시된 가운데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컨벤션 홀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전국 17개 시·도 중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41.19%였다. 전국에서 40%를 넘긴 곳은 전남이 유일하다. 이어 전북 38.46%, 광주 38.00%, 세종 36.80%, 강원 32.64%, 서울 32.63% 등 6개 시·도의 사전투표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로 25.60%에 머물렀다. 또 제주(28.50%), 경기(29.54%), 부산(29.57%)도 20%대에 그쳤다. 인천(30.06%)·울산(30.13%)·충남(30.24%)·대전(30.26%)·충북(30.64%)·경남(30.71%)·경북(30.75%)은

30%를 넘겼지만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전국 시·군·구 가운데 신안군이 54.81%로 전국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았다. 전남에서는 신안군에 이어 곡성군(50.51%), 장성군(50.04%), 함평군(49.77%), 담양군(48.90%) 등이 투표율 상위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처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을 놓고 여야는 각자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분석하며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사전투표 참여에 소극적이었던 보

수층의 적극 참여가 투표율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고 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남 지역 유세 현장에서 "사전투표율이 올라간 것은 (유권자들이) 범죄자에 대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사전투표장에 나갔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에 찬성하는 민심이 사전투표율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역대 총선 사

상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성난 민심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가운데 역대 최고치 사전투표율이 전체 총선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질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6차례 총선 투표율은 2000년 16대 57.2%, 2004년 17대 60.6%, 2008년 18대 46.1%, 2012년 19대 54.2%, 2016년 20대 58.0%, 2020년 21대 66.2%였다. 21대 총선의 경우 20대 때보다 사전투표율이 14.5%p 상승했고 전체 투표율 역시 8.2%p 오른 바 있다. /김재정 기자

"한 표라도 더" 마지막 휴일 총력 유세전

오전 교회·성당서 표심 공략...오후엔 집중 유세 지지 호소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주말·휴일을 맞아 광주 지역 후보들이 총력 유세전을 펼쳤다.

각 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은 주로 교회와 성당, 각종 행사장 등 유권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동남갑)·조인철(서구갑)·정준호(북구갑)·전진숙(북구을)·박균택(광산갑) 후보는 7일 오전 교회 예배와 성당 미사에 참석, 유권자들을 만났다.

오후엔 안도걸(동남을) 후보가 무등산 중심사 버스 종점에서, 양부남(서구을) 후보는 풍암체육공원에서, 민형배(광산을) 후보는 죽구대회가 열리는 첨단체육공원에서 선거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국민의힘 후보들도 종교시설이나 공원 등을 찾아 "광주 발전을 위해서는 민주당 일당 구도를 타파해야 한다"며 "힘 있는 여당 1석이 필요하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강현구(동남갑)·하현식(서구갑)·김윤(서구을)·양종아(북구을)·김정현(광산갑) 후보는 이날 오전 종교 행사에 참석했다. 오후에는 도심 공원에서 선거운동을 이어갔다.

박은식(동남을) 후보는 중심사 입구와 동명동 돌리단길에서, 안태욱(광산을) 후보는 첨단호수공원과 수완지구 변화가에서 유권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지지를 부탁했다.

김정명(북구갑) 후보는 동광중 교차로와 두암타운 사거리, 각화 농산물 시장 등에서 표심을 공략했다.

녹색정의당 강은미(서구을)·김용재(광산을) 후보는 이날 오전 종교 행사에 참석한 뒤 각각 품앗이사거리와 수완지구에서 집중 유세를 이어갔다.

광주 북구을을 전략 선거구로 지정하고 '율인'하고 있는 진보당은 선거운동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북구를 선거

구를 돌며 청소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윤민호 후보는 이른 오전 자원봉사자들과 삼각동 행정복지센터 뒤편 산책로를 청소한 뒤, 종교시설을 찾아 인사와 함께 예배에 참석했다. 오후엔 운암동과 신용동에서 500여명의 지지자들이 집결한 가운데 집중 유세를 펼쳤다.

새로운미래는 이낙연(광산을)·박병석(북구을)·정형호(광산갑) 후보 3명 모두 프루야구 경기장이 열린 기아챔피언스필드를 찾아 KIA 타이거즈 유니폼 상의를 입고 야구팬들을 만나 지지를 당부했다.

개혁신당 최현수(서구을)·장도국(동남을)·김원갑(북구을) 후보들은 각자 지역에서 이른 아침부터 도보로 주민들과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 /박선강 기자

Today

선거전 막판 상대 비방 막말 난무 4면
광주서도 전세사기 피해 잇따라 6면
양현종 '1만타자 상대' 대기록 16면

광주·전남 국회의원 당선인 합동 축하 인사회

광주매일신문과 광주MBC·KBC·광주CBS·뉴스1 광주전남·남도일보·전남매일이 공동 주최하고 광주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제22대 광주·전남 국회의원 당선인(이하 당선인) 합동 축하 인사회가 열립니다.

당선인과 각급 유관기관 단체장이 함께 참석하는 이번 축하 인사회는 광주·전남의 상생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의미를 두고 마련했습니다.

또한 당선인 개인이나 기관이 따로 만나는 번거로움이나 소모성 만남을 최소화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참석 인사: 광주·전남 국회의원 당선인, 광주·전남 출신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 각급 지방자치단체장, 시·도·기초의회 의장단, 각급 기관장, 광주상의 25대 의원
- 주 제: 광주·전남 상생 발전을 위하여
- 일 시: 2024년 4월 23일(화) 오후 2시
- 장 소: 광주상공회의소 7층 대강당
- 주 최: 광주매일신문·광주MBC·KBC·광주CBS·뉴스1 광주전남·남도일보·전남매일
- 주 관: 광주상공회의소
- 문 의: 광주상공회의소 062-350-5861·광주매일신문 062-650-2005

광주매일신문

최고의 위치!! 최대의 광고효과!!

광주 백운광장 미디어월

광주 백운광장 남구청사 미디어월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등의 공공목적 광고와 대국민 정책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1 **광주/전남 최대의 Full Color LED전광판**

▶ 다양한 화면구성으로 가시성과 주목성 탁월

02 **광주/전남 최대의 교통량 및 유동인구 밀집지역**

▶ 시뮬레이션 요청지로 광고 및 콘텐츠 전달력 탁월

03 **최고의 해상도와 화면구성으로 광고효과 극대화**

▶ 정보전달과 광고의 적절한 구성으로 효과 탁월

공공목적 광고 및 정책홍보

최고의 입지와 가시성으로 효과 탁월

다양한 정보제공과 광고로 주목도 상승

1일 100회 이상 노출 월 3,000회 이상 노출

위치

광주 백운광장 남구청사 미디어월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1 (봉선동, 남구청)

남양정보기술(주) ☎ 광고문의 062) 231-1355